

4주차

새로운 사회계층, 사족(士族)의 등장:1520년대

김 성 우

- 조선왕조의 관료층과 외방 유력층의 경제 상황을 살펴본다.
- 16세기 지주제와 농장제의 발달 추이를 살펴본다.
- 사족의 세 가지 신분적 특권(전가사변형 면제권, 정직 독점권, 향촌운영권)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.

학습목차

학습목표

학습내용

01. 부를 쌓는 사람들

- 관료층
- 외방 유력층

02. 농장(農庄)의 발달

- 16세기 지주제의 발달
- 농장제의 발달 추이

03. 사족의 공인과 신분적 특권(1): 전가사변형 면제권

- 외방의 무단작폐자에 대한 처벌론의 대두와 전가사변 정책
- 사족층의 재규정화 작업의 추진
- 1524~1525년 전가사변 정책의 향방

04. 사족의 특권(2): 정직(正職) 독점권

- 사족 지위 영속성의 기초: 관직
- 잡류층(雜類層)의 사회적 지위
- 16세기 사족층의 무반(武班) 인식

05. 사족의 특권(3): 향촌 운영권

- 조선 초기 유향소(留鄉所)의 설치와 폐지 추이
- 지방관과 지역 유력층의 관계
- 1525년(중종 20) 사족의 국가공인 이후
- 향약(鄉約) 실험
- 서치(序齒) 논쟁
- 향당에서 사족의 자체 처벌권

1차시

부르짖는 사람들

학습목표

- 조선 왕조 관료층의 부를 축적하는 상황을 살펴본다.
- 외방 유력층의 재정 상황을 살펴본다.

학습내용

- 관료층
- 외방 유력층

관료층

몰락 양인들의 투탁 유도

- 연산군 대 이후 국역체제 동요
 - 양인들의 몰락, 노비들의 도망 사례 증가
- 관료들이 추심(推尋)이라는 명목으로 노비를 만듦

“ 신공제(申公濟)가 1509년 (전라도) 능성 현령으로 재직했을 때의 일이다.
어떤 사람이 사람을 열거한 리스트를 갖고 와서,
“이들은 모두 공가(公家)의 도망 노비로서 모처에 거주하고 있으니
추심(推尋)하기 바란다.”고 일러 주었다. 그가 허락하지 않자,
그 사람이 물러 나와서는 “어리석은 사람이여, 이같은 거저 얻는
노비[空得奴婢]가 어찌 쉽겠는가”라고 말했다. ”

고위 관료

- 도망 양인, 노비를 받아들임
- 재산 증식 가능

중앙 관료의 공전(公田) 침탈

- 무주지(無主地)나 국유지 침탈, 개간 → 사유지화
- 녹양장, 서적전을 경작한다는 명목으로 사유지화
 - 녹양장(綠楊場): 갑사들의 훈련장소
 - 서적전(西籍田): 국왕이 농경의 모범을 보이는 곳

외방 유력층

외방 유력층의 축재 방식

- 몰락 양인을 강제로 ‘압량위천’
- 자신의 소유 노비와 ‘양천교혼’

외방 유력층의 축재 방식

- 유향품관(留鄕品官)으로 관청 출입
 - 재인(才人)과 백정(白丁)을 모점(冒占)
 - 관노비 사역, 전세를 납부하지 않음
- 중앙의 인식: ‘무단작폐자(武斷作弊者)’

토호(土豪)들의 발호

- 연산군 대 이후 불법행위가 주목됨
- 중종 대 불법행위가 사회문제가 됨

정부의 대응

- 품관들이 함부로 차지한 양민 수색함
- 불법 재산 축적을 조사함
- 무단토호(武斷土豪)에게 ‘전가사변(全家徙邊)’ 형(刑) 처벌
 - 전가사변(全家徙邊): 온 가족을 평안도, 함경도와 같은 국경지대로 보냄

마무리

- 양인들의 해체
- 서울 고위 관료와 외방 유력층의 부 축적

다음 차시에서는

- 16세기 지주제의 발달
- 농장제의 발달 추이



YONSEI
UNIVERSITY
MIRAE CAMPUS

K-MOC

기획·조정

이준희·정다영

교안

이유정·윤승희

영상

김록현